



대학생 400Km 국토대장정 스타트 조선대학교 제10회 국토대장정 참가 학생들이 2일 오전 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14박 15일간 400Km를 걷는 대장정에 나섰다. 62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대장정팀은 나주에서 완도를 거쳐 배를 이용해 제주로 간 다음, 오는 16일 강진·화순 등을 거쳐 되돌아오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5·18엔 '임을 위한...' 제창 가능할까

박승춘 보훈처장 "기념곡 신속 지정" 국회 답변 주목

국가보훈처도 구체적인 방안·절차 내부 논의 중 밝혀

정부가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와 담당 내년 5·18기념식에서의 제창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등에 대해 내부 논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18 기념곡 지정 여부와 관련,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지정된 기념곡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1절과 4·19 기념곡은 전국민 가사 공모를 한 뒤 이듬해 작곡가 가 곡을 붙여 만들었다. 이와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 단체·세력이 애국가 대신 부르는 경우가 있어, 이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또 국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견수렴 방식·지정 시기·반대 의견 설득 등을 놓고 내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다.

다른 기념곡이 공모에서 지정까지 1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내년 34주년 5·

18 기념식에서 부를 수 있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념곡은 전국민이 부를 수 있는 합의된 노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지정시기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다만, (보훈처장)이 국회에서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지난 4월 26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곡을 대체할 노래를 공모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작했다. 박보훈처

장이 지난 5월 2일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예년 수준의 기념식"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다음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 치권·시민단체·5월 관련단체 등에서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논란은 5·18 기념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강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총장 "쑈 추징금 10월까지 성과내야"

시효 연장 상관없이 추진

체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 추징시효 연장과 상관없이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

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집행 전담팀이 여유를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강력한 집행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당초 시효완성시점이었던 10월을 목표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승무부에서는 고액 추

징금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적정 시점에 실적을 취합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는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

법원 "삼청교육대 저항 행위도 민주화운동"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 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74)씨가 "보상금 지

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모과 다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2분 / 해질 19시 51분 / 달출몰 01시 33분 / 달몰 51시 32분

집중호우
전동,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내리겠다.

| | | |
|-----|---|---------|
| 광주 | 비 | 23/27°C |
| 목포 | 비 | 22/26°C |
| 여수 | 비 | 23/25°C |
| 나주 | 비 | 23/27°C |
| 완도 | 비 | 24/27°C |
| 구례 | 비 | 23/28°C |
| 강진 | 비 | 23/27°C |
| 해남 | 비 | 24/28°C |
| 장흥 | 비 | 23/27°C |
| 순천 | 비 | 23/27°C |
| 영광 | 비 | 23/27°C |
| 진도 | 비 | 23/27°C |
| 전주 | 비 | 23/27°C |
| 군산 | 비 | 23/27°C |
| 남원 | 비 | 23/27°C |
| 혁신도 | 비 | 21/25°C |

| | | | | | |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뇌졸중지수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m | 위험 | 보통 | 낮음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m | 위험 | 보통 | 낮음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1.5~2.5m | 위험 | 보통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5m | 목포 | 10:02 | 03:33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m | 여수 | 23:10 | 15:49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0.5~1.5m | 여수 | 05:18 | 11:30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m | 여수 | 18:17 | ---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 | | | | | |
|-------|-------|-------|-------|-------|-------|-------|
| 날씨 | 4(목) | 5(금) | 6(토) | 7(일) | 8(월) | 9(화)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23/27 | 23/27 | 23/27 | 23/28 | 23/27 | 23/28 |

오늘부터 남부 장마

광주·전남 많은 비 예상...시설물 관리 등 주의보

3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주 초인 8일까지 서해북부 해상에서 발달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이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3~4일은 강한 바람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런 장마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19~25도)보다 조금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6~13mm)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장마전선은 이동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남북으로 이동하는 소위 '남·북 진동'의 특징을 갖는다"며 "강수대(비가 내리는 지역)를 나타내는 분포도(강수패)에 해당하는 지역만 비가 내려 지역간 강수 편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

빗길 운전 특히 조심

사고 위험 평소보다 20% 높아

장마철 빗길 운전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20%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가 지난해 6~8월 발생한 15만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오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맑은 날에 비해 21.5% 높았다.

특히 비오는 날 야간(오후 8시~새벽 5시)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대비 62.2%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CJ 엘로비전 hello tv

헬로tv 가입하시면 반값!

LG LED TV

| | | | |
|-----|---------------------------|---------------|--------------------|
| 42형 |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 평균 890,000원 | 헬로tv+엘로비전 가입시 | 477,400원 (VAT 포함가) |
| 23형 |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 평균 277,000원 | 헬로tv+엘로비전 가입시 | 0원 |

카사히로 IPS패널의 Full HD LED TV LED TV의 최대 5배 밝은 화질 헬로tv의 3D가이드로 추천받은 서비스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 구분 |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 할부 구매시 할인율 |
|--------------|-----------------|------------------|-------------|----------------------|-----------------------|------------|
| 55형 55LN5400 | 2,600,000원 | 1,940,400원 | 25% ↓ | 3,088,800원 | 2,431,440원 | 13% ↓ |
| 42형 42LN5400 | 990,000원 | 477,400원 | 52% ↓ | 1,176,120원 | 788,040원 | 26% ↓ |
| 27형 27MA53D | 360,000원 | 92,400원 | 74% ↓ | 427,680원 | 364,320원 | 6% ↓ |
| 23형 23MA53D | 280,000원 | 0원 | 100% ↓ | 332,640원 | 253,440원 | 16% ↓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

자연산 참우를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우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삼육 음식: 토종 참우담 / 우똥 청동오리 / 우똥 삼계탕
-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우담 (오뎅, 식사, 술 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우똥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우똥 062)515-5757(우똥우똥)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